

2 0 2 3 지 구 촌 교 회

가 정 예 배 순 서 지

Loving Jesus,
예수님 사랑,
예수님 사랑!
Sharing Jesus!

VOL.20
2023 9-10

할아버지 야곱의 축복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복음성가

지 376장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 0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 0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 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엮바꾸어 얹었더라
-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와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으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이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1. 요셉은 자신의 아이들을 아버지 야곱 앞에 세워 축복의 기도를 받게 합니다. 야곱은 소중한 아들 요셉을 잃은 줄 알았던 과거를 생각하며 오히려 더 감사한 일로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요셉의 얼굴을 다시 보리라 기대조차 할 수 없었는데 요셉의 자녀들까지 대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은 긴 세월 노예와 죄수의 신분으로 살았던 요셉에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고, 아픔과 절망의 고통 속에 있던 야곱에게는 예기치 못했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다시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선물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때로 기대하지 않았던 일로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2. 할아버지 야곱은 두 손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축복을 할 때, 보통은 오른손을 장자에게 얹는데 야곱은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왼손을 장남인 므낫세의 머리에 올립니다. 요셉은 이를 정정하고자 했지만 야곱은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이를 그대로 시행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시력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었고 잘 분별하여 따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고, 순종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옳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지혜로우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우리의 계획이나 기대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또한 나의 삶을 온전하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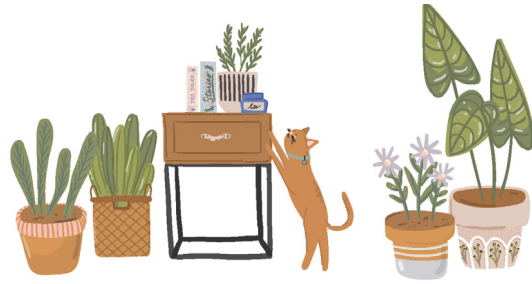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복음성가

지 174장
선하신 목자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21-49:12

-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겔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 0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 0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이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 0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 04 물의 꿈을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라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 05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 06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라
- 07 그 노여움이 흑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흠으리도다
- 08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도다
- 09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이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앞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도다
-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도다
-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도다



1.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난 이후에 야곱은 요셉에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이집트 땅이 조상들이 묻힐 그들의 본향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이 그들의 참된 본향임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까지 돌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까지 돌아가는 여정은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지만, 그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늘 함께하여 주셨고, 신명기 2장 7절의 말씀을 통해 부족함이 없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처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가득 넘치는 인생임을 얻어서는 안됩니다.

2. 야곱은 이제 아들들을 모두 불러 모아 유언을 말합니다. 르우벤은 큰아들로서 능력이 탁월했지만,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으로 그의 권리를 빼앗기고 탁월하지 못한 자가 될 것이라고 저주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동생의 복수를 위해 거짓과 속임수, 그리고 칼로 인한 복수로 인하여 저주합니다. 그러나 유다만은 다릅니다. 유다는 늘 가족에 대한 자기희생적이고 헌신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요셉을 죽이려는 형제들을 설득하여 결국 요셉을 애굽으로 가게 하였고, 애굽에서는 동생 베냐민을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로 이런 태도가 유다를 다른 형제보다 더욱 풍성한 축복을 받게 한 것입니다. 유다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된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가족들과 서로 나누어 봅시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축복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복음성가

지 319장
주께 힘을 얻고

-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 23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 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
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 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
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
오리로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모든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살아온 모습을 따라서 각자에게 합당한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의 절정에는 11번째 아들이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요셉을 향한 축복이 있습니다. 다른 자녀들을 향한 축복은 1절~2절에 걸쳐 말씀하시는데 비해 요셉을 향한 축복은 5절에 걸쳐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은 더욱 특별한 사랑과 은혜가 담겨있습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을 살펴보면 먼저 샘 곁의 무성한 가지(22절)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그 자손이 번창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곧 힘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자손이 번창하다는 것은 무엇보다 큰 축복입니다. 이어서 활 쓰는 자의 활보다 요셉의 활이 굳세다는 말씀은(24절) 요셉의 자손들이 외세의 침략을 이겨낼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안전을 보장받는 것은 모든 시대를 초월하여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25절)이라는 말씀은 삶의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복과 깊은 샘은 농사를 짓고 수확하기 위한 절대 요소입니다. 필요한 비를 공급해 주심으로 많은 수확을 누릴 것이며, 그 자손들도 그 풍성함으로 더욱 번창한다는 약속입니다.

요셉을 향한 축복은 우리가 사모하며, 우리가 자손들을 향해 축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다음 세대가 잘 세워지는 복,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거하는 복, 하나님의 채워주심으로 살아가는 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며 우리가 사모하며 간구해야 하는 복입니다. 요셉을 향한 이 놀라운 약속이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요셉을 향한 축복을 보면서 우리 가정을 향한 축복의 기도문을 작성해 봅시다.

야곱의 죽음과 장례



찬송가

406장

곤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복음성가

지 66장

나의 안에 거하라

-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헛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헛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헛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밭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 0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 0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 0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 야곱은 그의 아들 12명이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이루게 될 것을 알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야곱은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처럼 가족들의 머리인 아버지에게 축복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위해 무엇보다 축복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께서 분량대로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나의 영혼을 정결하게 지키고 그릇을 넓히는데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2. 야곱은 축복기도를 마치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생애는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아름다웠고 마지막까지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누구나 짧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기회를 소중히 감당하며 축복의 통로가 되다가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삶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야곱의 죽음은 한 가문을 넘어 한 국가의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역시 이처럼 아름답게 기억되길 원하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어떻게 나의 생애가 마무리되고 기억되면 좋을까요? 우리 가족들의 삶을 생각하며 가족들과 나누어 보세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봐어도



복음성가

지 212장

여기에 모인 우리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27-34

- 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1. 두 맹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치유의 힘을 기대했고, 신적 능력과 권위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간구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예수님 앞에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라고 똑똑히 대답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에서 건지실 ‘메시아’로 믿었고, 따르며 순종해야 할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놀라운 선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믿음 역시 단순하고도 명쾌합니다. “네! 주님!” 선포하며 믿고,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2. 예수님께서서 두 맹인의 눈을 만지시고, “너희 믿음대로 되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곧이어 귀신 들려 말을 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 앞으로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고, 말을 하게 된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놀라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위협을 느끼고, 이 기적이 귀신에 의한 것이라며 깎아내립니다. 예수님을 온전한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은혜와 기적을 경험하지만 비뚤어진 눈으로 보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있는 능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있습니까? 나에게 새로워져야 할 믿음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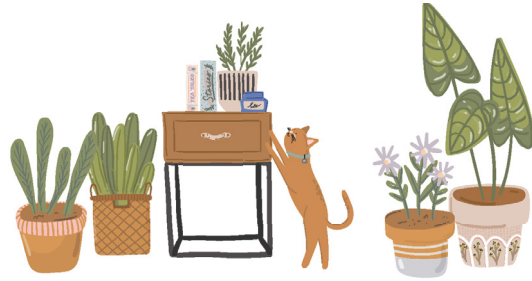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복음성가

지 2장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35-10:4

- 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 36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 37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 38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 01 예수께서 그의 열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 02 열두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 03 빌립과 바돌로매, 도마와 세리 마태,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대오,
- 04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1.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사람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부터 치유의 기록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병환자, 백부장의 하인의 중풍병, 귀신 들린 두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예수님께 나아왔던 중풍 병자와 한 관리의 딸, 혈루증 여인과 맹인과 말 못 하는 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치유의 근원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에 대하여 모르는 자들, 그리고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2. 예수님은 그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 말입니다. 그들은 출신 지역도 달랐고, 직업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부르신 예수님의 목적은 단 하나였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의 공생애 기간을 지냈던 제자들은 12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제자들의 명맥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여 이어져 왔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나에게 불쌍히 여기는 예수님이 마음이 있나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어떻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부르심 그리고 보내심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복음성가

지 154장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5-15

- 05 예수께서 이 열둘을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 06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 07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 08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 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 09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 10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 11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 12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 13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 14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 15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1. 예수님께서서는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후 그들을 사역의 자리로 파송하십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충분한 가르침을 받았다고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서는 부족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들고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한 사역은 준비가 된 사람, 훈련받은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모든 제자들이 해야 하는 사역임을 보여주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배경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열심도 달랐지만 예외 없이 모두 복음을 위해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2.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위해 구체적인 사역의 방향과 방법을 설명해 주십니다. 먼저 사역의 대상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입니다. 이는 지금 내 주변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족, 이웃, 친구 등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어서 사역의 방법으로는 천국 복음을 전하고 주님이 주신 능력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자의 삶은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은이나 금도 가지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면 주님이 책임져주십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가족, 친구, 이웃은 누구인가요?

복음으로 인한 핍박



찬송가

450장

내 평생 소원 이것뿐



복음성가

지 293장

좋은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16-33

- 16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 같이 순결하라
- 17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 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 18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 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 19 너희를 넘겨 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 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 21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 23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 24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니
- 25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집 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 26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 27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 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 2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 30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 31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 32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 33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1.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성령께서 알려주신다고 일러두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하는 이유만으로 가족과 재산을 잃고 심지어 순교하는 일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것은 핍박이 아니라 영원한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2. 예수님은 성도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드러내길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록 그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을 포기하는 경우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기꺼이 복음을 위해 희생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도 이러한 제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지금도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며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 '마지막 페이지'로 넘기셔서 가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제자의 길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복음성가

지 96장

내가 주인 삼은

우리 가정에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0:34-42

- 34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 35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 36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 37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 38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 39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 40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 41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 42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1.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길을 걸어야 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자신이 이 땅에 온 이유가 화평이 아닌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가족들과의 불화를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가는 길과 믿음의 길은 전혀 다른 길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마찰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합당한 삶을 말씀하시며 바른 삶에 대하여 권고하십니다. 합당한 삶은 바로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삶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최우선 순위는 무엇입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할 때 우리의 가정과 사회가 온전한 회복이 될 줄 믿습니다.

2. 예수님께서 권고하신 합당한 삶은 결코 말에만 있지 않습니다. 행함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걸었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였으며, 더 큰 영광과 존귀를 위한 고난과 수치의 길이였습니다. 그 길은 세상이 중요시하는 성공과 번영을 위한 길이 아닌 하늘의 영광과 주의 나라를 위한 고난의 길이였습니다. 마땅히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그 합당한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우리의 길은 어떻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세상이 가는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하브루타

1. 본문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인가요?
2. 현재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사람/물건 등) 무엇일까요?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 가장 먼저 자신이 무엇을 결단해야 할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Handwriting practice lines consisting of 20 horizontal dotted lines on a white background.



가정예배 이렇게 드리세요

- 1**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보세요.
가정의 상황에 맞게 예배의 길이와 횟수는 조정하시면 됩니다.
- 2** 예배의 형식과 방법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고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세요.
부모님은 사회자 역할을 해주시고 자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세요.
- 3** 말씀을 나눌 때 메시지가 자칫 자녀를 혼시하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오히려 하브루타, 축복기도, 기도제목나눔 등을 통해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 4** 찬양시간을 통해 자녀들이 찬송가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시고 복음성가와 어린이 찬양도 함께 불러보세요. 순서지에 제시된 찬양보다 더 많은 찬양을 불러도 좋습니다.
지구촌교회 GMC유튜브 채널에 다양한 찬양이 있습니다
- 5** 가정예배는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습관입니다.
신앙생활이 익숙하지 않아도 누구나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세요.

아래의 QR코드를 통해
가정예배 드리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축복기도 · 중보기도

아내를 위해
가장의 축복기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영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유혹과 시험이 와도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가정에 귀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주시고 천국과 같은 복된 가정을 이루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도 세상에서도 인정받게 하시고, 매일의 삶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부의 축복기도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며)

남편이 아내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내 생명인 당신을 축복하며 내 몸처럼 사랑하겠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남편입니다.
당신을 그 누구보다 존경하며, 사랑하며, 응원하며, 섬기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녀를 위한
가장의 축복기도

“나는 포도나무요 **자녀이름**는 가지라 **자녀이름**가 내 안에, 내가 **자녀이름**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자녀이름**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5)

우리를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님께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자녀이름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녀이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람이 되어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사랑으로 헌신하신 부모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가정을 돌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신을 위한 기도



선하신 하나님!
나에게 항상 가장 최선의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결정하고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건강 또한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세상에서 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함께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 안아주며 사랑 표현하기

3천 중보 용사 한맘 기도 각 가정에서 회개, 레위, 낫시, 미션, 라파의 기도 제목으로 중보해주시기 바랍니다.

